욥기의 서언과 결어에 나타난 '소유'(재산) 목록과 '신명'(神名)의 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

1장 1-5절과 42장 12-13절 본문을 중심으로

김진명(장신대)

1. 서론

클라인스(David J. A. Clines)는 현재 형태의 욥기를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서, 마치 그림의 액자와 그림의 관계와 같이, '틀'(frame) 과 '중심내용'(core)으로 구분해서 욥기를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문' 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시문' 부분이라는 것이다 (1:1-2:13, 틀(산문, 이야기) / 3:1-42:6 중심내용(시, 논쟁) / 42:7-17 틀(산문, 이야기)).[1] 하지만 과연 이 구분 방법에서 평가하는 바와 같이, 이 '틀'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의미 없는 부분이고, 이 책의 핵심으로서 세련되고 유의미한 부분은 논쟁형태로 구성된 '시문'이라는 평가가 정당한 것일까?

구약에 수록된 욥기가 기존의 전승(traditum)으로서 고대 근동의 수난문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2], 전승의 이스라엘화는 전승과정(traditio)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한 전승의 전달 과정은 신학적인 사고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이 과정은 문학적인 형식의 틀을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문제는 욥기의 '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서론과 결론의 본문이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수사학적인 장치와 문학적 형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학적 형식과 특징들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본문은 서론 가운데 특별히 욥의 '재산' 혹은 '소유'목록 (2-3절)과 관련된 1장 1-5절이며[4], 이에 상응하는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42장 12-13절의 비교 본문이다. 기존

* 본 논문은 2016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연구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David J. A.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17* (Dallas: Word Books, 1989), XXXV.

2) 강사문은 욥기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난문학 (수메르 욥, 바벨론의 무죄한 수난자, 바벨론 신정론)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수난문학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신앙'을 결합시킨 점이 욥기의 핵심적인 특징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만남'이라는 특수성을 결합시킴으로서 욥기는 메소포타미아 수난 문학의 '이스라엘화(化)'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강사문, "욥기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난문학," 강사문,『구약의 역사이해』(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410-425. 고대근동의 수난문학 작품들의 내용과 구약의 욥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특수성에 관한 연구는 이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욥기의 저자 문제와 저술 시기 등에 관한 주제들은 김영진외 15인공저,『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85-497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욥기의 본문 형성 시기와 역사에 대한 재구성의 문제 보다는 최종본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3) 'traditum' 과 'traditio'의 개념은 전승과 전승과정의 의미로 휘쉬베인 (M. Fishbane)이 inner-biblical exegesis와 연관된 유대적 주석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활용한 개념이다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New York: Oxford Universit Press, 1985). 본 연구자는 이 개념들은 욥기 본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욥기 1장 1-5절과 42장 12-17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난 문학의 전승 (traditum)을 이스라엘화하는 과정 (traditio)을 보여주는 본문들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의 본론 부분에서 설명해 가고자 한다.

4) 여기서 '재산' 과 '소유'를 함께 언급한 것은 가축들과 함께 사람 (자녀)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물리적인 재산 보다는 욥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www.kci.go.kr

의 욥기 주석서와 연구들에서는 이 본문들에 나타난 재산 목록의 문제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본문을 다루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론부의 재산 목록 내용에 대한 해설과 결론부에서 다시 등장하는 재산의 증가와 회복 문제만을 설명하거나(F. Horst, N. H. Snaith, 이군호, 안근조)[5], 단순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쳤으며, 이 주제와 본문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J. G. Janzen, M. H. Pope, 우상혁).[6] 그 가운데는 '재산'의 문제 보다 '사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2-3절에 기록된 '재산' 목록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G. Gutierrez, 박철우).[7]

하지만 이 '재산' 목록의 본문은 욥기의 서론과 결론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이어주는 문학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할 중요한 문제는 두 본문 사이에서 나타난 '신명'(神名)의 변화 현상이다. 1장 1-5절의 신명인 אֱלֹהִים(엘로힘/하나님)이 42장 12-13절에서는 יהוה(아도나이/주님)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본문상의 변화들을 통하여 욥기의 최종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와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욥기의 서론과 결론부의 두 본문에 나타난 최종본문상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비평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적용 결과를 토대로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주석적인 본문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욥기 1장 2-3절과 42장 12-13절에 수록된 욥의 '소유' 목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이기에, 욥기의 서론(1:1-2:13)에 나타난 '야훼'와 '엘로힘'(1:21-22, 2:1 등)과 '샷다이'(전능자, 32:8, 33:4 등)를 포함한 욥기 전체의 '신명' 사용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8], 정해진 분량의 지면 관계상 고대 근동의 수난 문학에 대한 비교 종교-문학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유된 전승'이라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 설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9]

---

5) F. Horst, *Hiob, Kapitel 1-19*, 1. Teilband, *Biblischer Kommentar* (Neukirchener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10. 호르스트 (F. Horst)는 가축의 효용성과 낙타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문제 (W.F. Albright)와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의 연관성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창 32:15, 출 21:1–22:16 등). 스나이드, 『욥기의 형성사』(김성애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15–16. 원제는 N. H. Snaith, *The Book of Job* (London: S.C.M. Press, 1968). 스나이드는 1장에 기록된 욥의 원래 재산과 42장의 증가된 재산을 비교하였다. 이군호,『욥기』(서울: 전망사, 1977), 31/206–208. 이군호는 재산 상태를 소개한 본문으로 1장 2–3을 설명하였고, 42장 10–17절 본문을 해설하면서 회복된 행복의 한 요소로 재산의 문제를 언급한다. 목회와 신학편집부 엮음,『욥기』(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04/346. 안근조는 욥기 1–2장과 42장 7–17절 주석에서 욥의 경제적인 번영과 회복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욥의 소유 목록을 설명하였다.

6) J. G. Janzen,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35/269. 잰슨은 욥기 1장 2–3절을 '목가적인 번영'에 대한 진술로 평가하였고, 11절의 물질적인 선물들은 그의 삶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정도로 12–13절과 연결시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욥의 소유 목록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M. H. Pope, *Job*, *The Anchor Bible* 15 (New York: Doubleday, 1997), 7. 팝도 욥의 재산 목록이 '반유목민 족장'의 재산 (창 12:16, 24:35)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지만, 더 이상의 주석적인 해설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우상혁, "이야기로서 욥기 읽기," 『구약논단』39집 (2011년 6월), 88–89 / 102–103. 우상혁은 욥기를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공시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욥 기 1장 1–5절을 '배경 내레이션' 단락으로 구분하고, 42장 7–17절을 '마무리 내레이션'으로 분류하여 이 단락들에 속한 내용으로서 욥의 소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7)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욥기』(제3세계 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서울: 나눔사, 1991), 32–33. 원제는 G. Gutierrez, *On Job* (New York: *Orbis Books*, 1987). 구티에레즈는 욥기의 서문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의 소유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소유'의 문제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철우, "소명기사 (이사야6장)의 관점에서 재고한 욥기 38–42장의 중심내용," 『구약논단』52집 (2014.6), 94–126. 박철우는 욥기의 서론 (1–2장)과 결론 (42:7–17)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한권의 책으로 욥기를 읽어야 한다는 점과 소명의 관점에서 욥이 한 사람의 성숙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소명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 역시 욥의 소유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8) 슈미트 (W. H. Schmidt)는 '엘로힘'이 구약에서 2600회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W. H. Schmidt, "אֱלֹהִים" Ernst Jenni, Claus Westermann (ed.), *Theologisches Hand wrterbuch zum Alten Testament*, Mark E. Biddl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1* (Peabody: Hendrickson, 1997),116–117. 링그렌은 구약에서 '엘로힘'의 형태가 2570번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신명은 '엘'과 '엘로아흐'이고, 욥기에서는 '엘'이 55회, '엘로힘'이 4회, '전능자'로 번역된 '샷다이'가 31회 사용되었으며, 구약에서 57회 나타나는 '엘로아흐'가 욥기에서 총 41회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H. Ringgren, "אֱלֹהִים"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1 (Grand Rapid: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267–284 (272).

9) 고대근동의 수난문학 작품들은 W. Beyerin, Near Eastern Religious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133–14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고대근동문학 연구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고전적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F. Delitzsch, *Babel und Bibel* (Leipzig: J.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02), S. Langdon, *The Babylonian Epic of Creation* (Oxford, 1923),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이 주제와 내용은 확장된 형태의 후속적인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www.kci.go.kr

2. 욥기 1장 1–5절의 내용과 짜임새

1) 사역

1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1b).
2 그에게서 태어난 이들은 일곱 명의 아들들과 세 명의 딸들이었으며,
3 그의 소유는 칠천 마리의 양떼, 삼천 마리의 낙타들,
오백 겨리의 소, 오백 마리의 암나귀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았고,
그는 동방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사람[10]이었다(3b).
4 그의 아들들은 가서 각자 정해진 날에,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들의 세 누이들도 함께 먹고 마시도록 초청하였다.
5. 그리고 그들의 잔칫날들이 차례로 돌아가고 나면, 욥은 보내어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때에 욥이 말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은 항상 그렇게 행하였다(5b).

2) 본문풀이

욥기 1장 1-5절은 맛소라 본문상으로 보았을 때 '개방단락'(פ)으로 단락 구분이 가능한 본문을 이루고 있다. 1절의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라는 문장은 문학적으로 이야기의 첫 부분을 시작하는 '서론 양식'에 해당한다.[11] אִישׁ הָיָה(이쉬 하야/한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되는 첫 문장은[12]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접속사와 함께 정형화된 형태로 시작하는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 양식과는 다르게, 이미 계속되던 어떤 사건과도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시작을 보여주는 문장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13]

1절 후반절의 וְהָיָה הָאִישׁ הַהוּא(브하야 하이쉬 하후/(그리고)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도 정관사가 결합된 '인칭대명사' 〈하후〉를 사용한 강조용법의 문장이며, 이어서 욥에게 적용된 수식어구들은 תָּם'(탐/완전한), יָשָׁר(야샤르/정직한)라는 두 개의 형용사와 וִירֵא אֱלֹהִים(위레 엘로힘/(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과 וְסָר מֵרָע(워사르 메라으/(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두 개의 명사구이다.[1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자 라는 서술적 호칭은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총 3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 12절(아브라함)과 전도서 7장 1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5] 1절은 욥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해당하며(A), 이 내용은 3절 하반절(3b - B)과 5절 하반절(5b - C)의 욥에 대한 평가 문장들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욥기 1장 1-5절 본문의 내용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10) גְּדוֹל(가돌/큰)은 위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된 용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F. Brown, S. R. Driver, C. A.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on of the Old Testament* (Lond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153.

11) 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A. E. Cowley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0),106, d–e.

12) 부정관사가 없는 히브리어 낱말 〈이쉬〉의 어감을 살려 여기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로 번역하였다. 이 본문을 〈개역개정역〉에서는 '사람이 있었는데'로 번역하였고, 〈표준새번역〉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로 번역하였다.

13) M. H. Pope, 윗글, 3. 나단의 비유 (삼하 12:1), 모르드개에 대한 소개 (에 2:5) 비교. ; R. Gordis, *The Book of Job*,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10; C. L. Seow, *Job 1-21* (Michigan/Cambridge: Grand Rapids, 2013), 252 참조.

14) '악에서 떠난 자'에서 〈사르〉는 히브리어 동사 〈수르〉의 남성 분사형이다.

15) G. E. Weil(ed.), *Massorah Gedolah*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1), 378.

www.kci.go.kr

1:1	1a 소개	고향 אֶרֶץ־עוּץ(에레츠-우츠/우스땅), 이름 bAYai(이욥/욥)	
	1b 평가	תָּם(탐/완전한), יָשָׁר(야샤르/정직한)	A
		יָרֵא(원형:야레/경외하는 자), סוּר(원형:수르/떠난 자)	
1:2	자녀	בָּנִים(바님/아들들), בָּנוֹת(바노트/딸들)	소유
1:3	3a 가축	צאן(촌/양떼)–7000, גְּמַלִּים(그말림/낙타들)–3000	
		בָּקָר(바카르/소)–500겨리, אֲתוֹנוֹת(아토노트/암나귀들)–500마리	
		עֲבֻדָּה רַבָּה מְאֹד*(아브다 랍바 므오드/매우 많은 종)	
	3b 평가	הָאִישׁ הַהוּא גָּדוֹל מִכֹּל־בְּנֵי־קֶדֶם (하이쉬 하후 가돌 미콜–브네–케뎀/모든 동방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사람)	B
1:4	מִשְׁתֶּה (미스테/잔치)	אִישׁ יוֹמוֹ*(이쉬 요모)/ 각자 그의 날(=정해진 날에))	삶
		הָלַךְ(원형:할라크/갔다), עָשָׂה(원형:아사/벌였다)	
		אָכַל(원형:아칼/먹었다), שָׁתָה(원형:샤타/마셨다)	
1:5	5a עֹלָה (올라/번제)	קִדֵּשׁ(원형:카다쉬/성결케 했다), הֶעֱלָה(원형:살라흐/보냈다)	
		עָלָה(원형:알라/제사드렸다), הִשְׁכִּם(원형:샤캄/일어났다)	
	5b 평가	כָּכָה יַעֲשֶׂה אִיּוֹב כָּל־הַיָּמִים (카카 야아세 이욥 콜–하야밈/욥은 항상 그렇게 행하였다 (=살았다))	C

2-3절은 욥의 '자녀'와 '가축'과 '종들'의 목록으로서 그의 '재산' 혹은 '소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4-5절은 '정해진 날'과 '잔치'와 '제사'에 관한 기록이며, 여기서도 사용된 동사들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특징(가다/벌이다, 먹다/마시다, 가다/성결케 하다, 일어나다/번제를 드리다)을 보여주며[16], 이 부분은 욥의 '삶'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6) C. A. Newsom, *The Book of Job*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3.

5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라는 번역문에서 '저주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בָּרַךְ'(바라크)이다. 히브리어 인쇄본성경(BHS)의 비평장치에서는 '저주하다'라는 뜻의 〈칼랄〉 동사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해설하였지만, 〈표준새번역〉 성경에서는 각주에 '서기관의 대치'로 설명해 놓았다.[17] 여기서 사용된 동사 〈바라크〉가 42장 12절에서 문맥상 '복을 주다'라는 대비되는 뜻의 단어로 다시 사용되었다는 점은 욥기의 서언과 결어 부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수사적인 장치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욥기는 성문서의 책들 가운데서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데[18], 1절 첫 문장의 בְּאֶרֶץ־עוּץ(브에레츠-우츠/우스 땅에) 라는표현은 에돔과 연관된 장소로 해석되기도 했으나(창 36:28, 대상 1:42, 애 4:21),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9]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우스'라는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이며, 이를 통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민족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보편적이며 무시간적인 가르

17) M. McCarthy, *The TiQQune Sopherim* (Göttingen: Vanderhoeck und Ruprecht, 1982), 192. 맥칼티는 이것을 서기관의 개정과 구별되는 원래적 완곡어법으로 보았다.

18) 잠언과 전도서는 '인물'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다니엘은 '시간'(여호야김 3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며, 룻기는 '시간과 공간과 인물'(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모압 지방에…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두 형식은 예언서들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언서의 양식 비교 연구는 C. Westermann/tr. H.C. White,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London: Luther Worth Press, 1967)을 참고할 수 있다.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 공간, 인물
말라기	스가랴(다리오왕 2년)	나훔(엘고스 사람…)	미가(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요나	학개(다리오왕 2년)		아모스(웃시야 시대, 드고아 목자)
오바댜	스바냐(요시야 시대)		
요엘	호세아(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19) D. J. A.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7* (Dallas: Word Books, 1989), 10; J. E.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1991), 65.

www.kci.go.kr

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20]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포함된 욥의 소유 목록을 수록한 2-3절의 본문이 42장 12-13절과 문자적인 일치와 더불어 구조와 내용에서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의 정확한 기능과 의미 해석을 위해서는 1장과 42장 사이의 연관된 본문을 검토한 후에 주석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3. 욥기 전체 구조 속에서 1장 2–3절과 42장 12–13절의 상호 관계와 기능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욥기의 전체 구성을 1-2장의 '서론'과 42장 7-17절의 '결론'으로 구분하였고, 그 가운데 놓여 있는 3장과 29-31장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시문'이며 욥기의 애가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1] 팝(M. H. Pope)도 1-2장을 '서언'(prologue)으로 보고, 42:7-17을 '후기'(epilogue)로 구분하였다.[22] 문체에 있어서도 욥기의 서론과 결론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한 본문들은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32:1-5 산문 제외).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응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욥기의 서론과 결론에 나타난 연관성은 특별히 욥의 '소유'와 관련된 목록의 용어와 본문 구성에서 서로 일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1장 2-3절의 '자녀-가축'의 목록은 42장 12-13절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낱말들을 사용하였고, '가축-자녀'의 목록으로 순서를 바꾸어 기록하였다. 가축의 숫자는 2배수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지만, 자녀의 숫자는 아들 일곱과 딸 셋으로 동일한 숫자를 구성한다.

1:2 자녀	בָּנִים(바님/아들들)–7, בָּנוֹת(바노트/딸들)–3	a
3 가축	צֹאן(촌/양떼)–7000, גְּמַלִּים(그말림/낙타들)–3000 בָּקָר (바카르/소)–500겨리, אֲתוֹנוֹת(아토노트/암나귀들)–500마리	b
42:12 가축	צֹאן(촌/양떼)–14000, גְּמַלִּים(그말림/낙타들)–6000 בָּקָר(바카르/소)–1000겨리, אֲתוֹנוֹת(아토노트/암나귀들)–1000마리	b'
13 자녀	בָּנִים(바님/아들들)–7, בָּנוֹת(바노트/딸들)–3	a

휘쉬베인(M. Fishbane)은 '전승'을 전달하는 유대 서기관들의 역할 가운데는 '표제어'(레 6:2, 7; 7:1, 11)와 '간기'(刊記, colophon)(7:37-38, 11:46-47)를 붙이는 작업이 있었고, 예를 들어 '수미상응구조'(inclusio)를 이루는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 덧붙여진 12장 9-12절이 서기관들의 간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석하였다.[23] 이러한 구조 분석은 욥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2-3절과 42장 12-13절을 일종의 '수미상응구조'로 보고, 나머지 42장 14-17절의 추가적인 설명 부분을 '간기'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 욥기 1장과 42장의 '소유' 목록에 해당하는 '자녀'와 '재산'의 목록은 최종 본문 상에서 문학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수사적인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욥의 자녀들을 언급한

20) D. J. A. Clines, 윗글, 10; 이군호,『욥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84–85

21) C. Westerman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1–13. 베스터만은 4–27장을 대화부분으로, 38–42장을 하나님의 응답 부분으로 구분하고, 28장은 욥기의 가운데 위치한 본문으로 파악하였다.

22) M. H. Pope, 윗글, 15–16.

23)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24–43.

www.kci.go.kr

'사람'의 문제도 문학적인 구조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볼(C. J, Ball)은 욥이 재난으로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가족관계 문제를 '문자적 역사'로 다루는 것보다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 값'과 연결 지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아들 일곱 명과 딸 세 명의 숫자는 그 숫자 값을 합하여 '10'이 되는 욥(אִיּוֹב)의 히브리어 이름 철자들과 연관된 '완전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24]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욥의 자녀 상실과 회복이 기록된 서문과 결어의 문장은 사람의 '부모-자녀'라는 '인격적 관계'의 문제라는 관점보다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비인격적 차원의 수사학적인 구조와 문학적 장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수'의 변경 없이 기록된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문제는 사람과 관련된 고통의 주제가 재산이 두 배로 불어난 것과 같이, 단순히 '숫자'의 물리적 증가로는 해결될 수 없는 주제이며,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25]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있지만, 문학적인 형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욥기의 서론과 결론이라는 전체 구조 안에서 욥기 1장 1-5절과 42장 7-17절은 욥기의 저자가 전승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틀로서 마련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장 1-5절의 본문은 욥의 '소유' 목록에 해당하는 본문들의 상호적 연관성을 통해 '수미상응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이 책 전체의 이야기 전개를 위하여 욥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5절에서 묘사하는 욥에 대한 평가는 책 전체의 구조 안에서도 이야기 전개를 위한 '서론적인 소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6]

1장 1-5절 해석을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신명'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1절에서 처음 주어로 등장하는 신명은 אֱלֹהִים(엘로힘/하나님)이다.[27] 링그렌(H. Ringgern)은 욥기의 내용 가운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사용된 '신명'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신명으로서 '야훼'를 의미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였다.[28] 카수토(U. Cassuto)는 구약 본문의 주제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에는 '야훼'라는 신명이 사용되지만,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일반적인 전통과 관련될 때에는 '엘로

24) C. J. Ball, *The Book of Job* (Oxford: Clarendon Press, 1922), 97.

ו(히브리어 알페벳 숫자값 6)+א(숫자값 1)=7	아들
א(숫자값 1)+ב(숫자값 2)=3	딸
둘의 합: 10 = י	완전함 (=의미)

– 각각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욥'의 히브리어 이름을 구성하는 철자들이다.

25) N. H. Snaith, 윗글, 15-16. 스나이드는 욥의 재산이 회복될 때 아들 일곱을 언급한 욥기 42장 13절의 בְּעָנָה(쉬브아나)는 고대 형태의 표현일 수 있다고 보고, 탈무드 전승에서는 일곱의 두 배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딸의 경우는 1장 18-19절의 재난 보고에서 '젊은 남자들'을 뜻하는 נְעָרִים(느아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26) J. G. Janzen, 윗글, 25. 잰슨 (J. G. Janzen)은 욥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1-2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1-5 욥에 대한 소개
1:6-12 하늘의 첫 장면 (시작하는 질문)
1:13-22 땅의 첫 장면 (고난에 대한 욥의 응답)
2:1-7a 하늘의 둘째 장면 (천상의 질문)
2:7b-10 땅의 둘째 장면 (욥의 응답과 고난)
2:11-13 결론적 이야기 (친구들의 소개와 욥의 고통)
클라이스는 욥기 서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행을 이루는 6개의 장면들(scenes)로 단락 구분하였으며, 1-5을 '여는 장면'(opening scene)으로 보았다. Clines, *Job 1-20*, 6-7
1. 지상 1:1-5 욥의 경건
2. 천상 1:6-12 야훼와 사탄의 첫째 대화
3. 지상 1:13-22 욥에게 보고된 재난들
4. 천상 2:1-7a 야훼와 사탄의 두 번째 대화
5. 지상 2:7b-10 욥의 개인적 재난들
6. 2:11-13 욥의 친구들의 도착

27) John. R. Kohlenberger III, James A. Swanson, *The Hebrew English Concordance* (Grand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8), 109, 3378.

28) 윗글, 272.

www.kci.go.kr

힘'이라는 신명을 사용하였던 구약의 언어적 전통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29]

1-2장의 서론에서 '엘로힘'(11회)과 '야훼'(아도나이, 18회)라는 신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30], 42장에서는 '야훼'라는 신명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1장의 재산 목록이 등장하는 1-5절에 사용되었던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42장의 상응하는 비교 본문으로서 12-13절의 재산 목록 연결 본문에서는 '야훼'로 명확하게 바뀌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4. 1–2장의 구조 속에서 1장 1–5절의 위치와 기능

욥기 1장 1-5절은 이러한 욥기의 서론 단락 안에서 다시 부분적인 '서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3절의 자녀와 가축과 종들과 관련된 욥의 소유 목록은 14-18절의 재난에 관한 본문에서 그 순서가 흐트러져 있고, 가축들의 목록은 정관사가 붙은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아들들과 딸들은 '너의'라는 2인칭대명사 속격 접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기록되었다.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난의 내용이 전개되는 13-22절 단락과 1-5절의 첫 단락은 이처럼 욥의 '소유' 목록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밀접한 상호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유 목록의 문자적인 일치와 순서상의 대칭관계는 42장 12-13절에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1:2–3		1:14–18			42:12–13		
아들	בָּנִים	2절	הַבָּכֹר(소)	–	14절	+	צאן	12절
딸	בָּנוֹת	2	אֲחֹתֹנוֹת (암나귀)	–	14절	+	גְּמַלִּים	12
양	צאן	3절	בַּצֹּאן (양)	–	16절	+	בָּקָר	12
낙타	גְּמַלִּים	3	הַגְּמַלִּים (낙타)	–	17절	+	אֲתֹנוֹת	12
소	בָּקָר	3	בָּנֶיךָ (아들)	–	18절	+	בָּנִים	13절
암나귀	אֲתֹנוֹת	3	וּבְנוֹתֶיךָ (딸)	–	18절	+	בָּנוֹת	13

그러므로 1장 1-5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낱말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욥기의 서론으로서 1-2장의 나머지 본문과도 1-5절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42장 본문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5절은 욥기 전체를 결론 부분과 연결시키는 전체의 서론으로서 기능을 하는 동시에, 1-2장에서 전개되는 천상회의와 사탄의 시험 이야기에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론 부분의 서언으로서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본문은 욥기의 전승을 전달하는 수사적이며 문학적 장치로서 42장 12-13절과 연결되어 '수미상응구조'를 이루고 있는 본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욥기 1장 1–5절과 42장 12–13절의 신학적 의미 해석

그렇다면 욥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서로 상응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욥의 '소유' 목록과 그 관련 본문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최종본문으로서 현재의 욥기 서론은 '신명'을 אֱלֹהִים(엘로힘/하나님)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42장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관련 본문에서는 '엘로힘' 대신에 이스라엘 고유의 신명으로서 יהוה(아도나이/주님)로 기록된 '야훼'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2장 12절 전

29) 카수토,『반문서설』(배제민역편), (서울: 기독교문사, 1991), 45. 원제는 U. Cassuto, Documentary Hypothesis (Jerusalem: Magnes Press, 1961). 하지만 욥기 1–2장에서 '야훼'라는 신명과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전체 구약 본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원리일 수 있다.

30) 윗글, 33.

www.kci.go.kr

반절에서는 1장 5절에 사용된 בָּרַךְ(바라크/복주다) 동사의 주어를 '야훼'로 기술함으로써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이 바로 '야훼'임을 드러내 주었다.

וַיהוָה בֵּרַךְ אֶת־אַחֲרִית אִיּוֹב מֵרֵאשִׁתּוֹ ⋯

(그리고 야훼께서 욥의 나중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다…(사역))

이 본문은 주어를 '야훼'로 기록함으로써 결국 욥의 복은 '야훼'께서 주시는 것이며, 처음과 나중이라는 대조적인 개념이 모두 야훼께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욥의 인생 전체와 모든 것이 '야훼'의 주권 안에 들어 있다는 가르침(메세지)을 전달한다. 이어진 12-13절은 처음보다 두 배가 된 많은 가축과 처음과 동일한 10명의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욥이 받은 복의 구체적인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본문의 표현은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10절과도 연결될 수 있다.

וַיהוָה שָׁב אֶת־שְׁבִית אִיּוֹב בְּהִתְפַּלְלוֹ בְּעַד רֵעֵהוּ

וַיֹּסֶף יְהוָה אֶת־כָּל־אֲשֶׁר לְאִיּוֹב לְמִשְׁנֶה:

(그리고 욥이 기도할 때에 그의 곤궁함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야훼께서 회복해주셨다. 그리고 야훼께서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두 배로 더해주셨다.(사역))

동사 שׁוּב(슈브/돌이켰다)와 יָסַף(야사프/더했다) 의 주어 역시 '야훼'이다. 욥과 그의 친구들을 회복하시는 분도 욥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도 이스라엘의 '야훼'이시다. 여기서 '모든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כֹּל(콜/모든)은 12절의 '처음과 나중'과 연결될 수 있다.[31] 이처럼 욥기 1장과 42장의 '소유' 목록과 관련된 '신명'은 일반명사로서 '신들'로도 번역될 수 있었던 '엘로힘'에서 이스라엘 고유의 신명인 '야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야훼'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욥기 1-2장의 전체 서론에서는 천상회의를 주관하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명이 '엘로힘'과 '야훼'로 함께 등장하지만, 42장의 결론에서는 '야훼'라는 신명만을 사용함으로써,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나님은 '야훼'라고 밝혀준다.[32] 동시에 욥기는 38장 1절-42장 6절의 본문들에 담겨 있는 창조주 야훼에 대한 이해를 이어지는 42장 7절 이하의 본문에 결합시킴으로서 욥기 전체의 문학적인 구조가 '야훼는 누구인가?'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33]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사람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그를 만나고,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며,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인 시간의 제한된 범위를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로서 '신관'의 문제는 1장 1-5절과 42장 12-13절의 욥의 '소유' 목록과 연관된 매우 인상적이며, 짧은 비교 본문들 가운데서 '신명'의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인 틀은 욥의 이야기와 관련된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문학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로서 '고난'의 전승(traditum)을 결국 이스라엘의 '야훼'를 선포하는 본문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스라엘화' 하는 전승과정(traditio)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

31) 히브리어에서는 양극단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통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사 44:6; 45:6, 7; 시113:3). Karl Elliger, *Deutero Jesaja 40.1-45.7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1 (Neukirchen–Vluyn:Neukirchener Verlag, 1978), 401–402 ; Hans–Joachim Kraus, *Psalmen Teilbd.2*, tr. by H. C. Oswald, *Psalms 60-150*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368 참조.

32) 강사문은 구약의 '엘'이 제1성전 시기에 '야훼'(아도나이)로 대체되었고, 형용사적인 '엘'은 '엘로힘'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크로스 (Cross)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타문화권의 문화적 유산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후에 야훼신앙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사문, "조상의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13–29.

33) '야훼' 선포를 위한 구약의 경전적인 특징에 관한 논의는 김진명,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룻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48집 (2013년 6월), 43–66 을 참조할 수 있다.

34) 강사문, 윗글, 424. 강사문은 욥기가 고대 근동문학의 이스라엘화가 시도된 작품이며, 왕정시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하였다.

www.kci.go.kr

즉, 이러한 본문들의 문학적인 틀은 '야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고난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기의 기록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공유하거나, 저마다 자신들의 종교 체계 안에서 신이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고대 서아시아 세계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요구하였다.

אִם־יְהוָה הָאֱלֹהִים לְכוּ אַחֲרָיו וְאִם־הַבַּעַל לְכוּ אַחֲרָיו

(임-아도나이 하엘로힘 르쿠 아하라브 브임-합바알 르쿠 아하라브)

"여호와(יְהוָה)가 만일 하나님(הָאֱלֹהִים)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הַבַּעַ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개역개정역) 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선택 요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쳤던 간구의 내용 가운데 37절의 כִּי־אַתָּה יְהוָה הָאֱלֹהִים(키-아타 아도나이 하엘로힘/야훼 당신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현장에서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다면, 욥기의 저자는 욥기의 서론과 결론부에 나타난 문학적인 장치로서 '수미상응구조'(inclusio)의 수사학적인 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훼이다'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독자와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이 연구는 산문으로 이루어진 욥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1:1-2:13, 43:7-17)이 시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본문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적 구조의 틀 속에 고대 근동의 수난 문학과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전승'(traditum)으로서 '고난'의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욥기의 서론과 결론 가운데서도 더욱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욥의 재산 목록은 각각 1장 2-3절과 42장 12-13절에 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통해 문학적으로는 '수미상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1장의 소유 목록과 관련된 1-5절에 나타난 '엘로힘'이라는 신명이 42장의 상응하는 본문에서는 '야훼'라는 이스라엘 고유의 '신명'으로 달리 표현되었다는 차이였다.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최종본문상의 문학적 구조 안에서 '신명'의 변경은 이 책 전체를 통해 전개되었던 욥기의 '신관'을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확인시켜주는 수사학적인 기능을 한다. 즉, 욥기는 욥의 처음 소유 목록과 관련 본문에 나타난 '엘로힘'을 책의 마지막에 위치한 비교 본문에서 '야훼'로 밝혀줌으로써 '야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학적 구조와 장치를 통하여 욥기는 사람의 인생 전체로서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도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임을 다양한 종교와 신들에 대한 인식이 공존하던 고대 서아시아 세계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훼'를 선전하고 알리는 종교적 목적을 갖는 경전의 한 책으로서 욥기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www.kci.go.kr

7. 참고문헌

강사문,『구약의 하나님』(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_____,『구약의 역사 이해』(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2)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욥기』(제3세계 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32-33. 원제 G. Gutierrez, *On Job* (New York: Orbis Books, 1987).

김영진외 15인공저,『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김진명, "고대 서아시아 종교의 배경 속에서 본 룻기의 기록 목적에 관한 연구,"『구약논단』48집 (2013년 6월), 43-66.

목회와 신학편집부 엮음,『욥기』(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박철우, "소명기사 (이사야6장)의 관점에서 재고된 욥기 38-42장의 중심내용,"『구약논단』52집 (2014년 6월), 94-126.

스나이드,『욥기의 형성사』(김성애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15-16. 원제 N. H. Snaith, *The Book of Job* (London: S.C.M. Press, 1968).

우상혁, "이야기로서 욥기 읽기,"『구약논단』39집 (2011년 6월), 83-107

이군호,『욥기』(서울: 전망사, 1977)

_____,『욥기』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카수토,『반문서설』(배제민역편), (서울: 기독교문사, 1991), 45. 원제 U. Cassuto, *Documentary Hypothesis* (Jerusalem: Magnes Press, 1961)

Ball, C. J., The Book of Job (Oxford: Clarendon Press, 1922)

Brown, F., Driver, S. R., Briggs, C. A., *Hebrew and English Lexion of the OldTestament* (Lond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Clines, 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7 (Dallas: Word Books, 1989)

Elliger, K., *Deutero Jesaja 40.1-45.7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1 (Neukirchen-Vluyn:Neukirchener Verlag, 1978)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New York: Oxford Universit Press, 1985)

Gordis, R., *The Book of Job*, New York: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Hartley, J. E.,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1991)

Horst, H., *Hiob, Kapitel 1-19,* 1. Teilband, *Biblischer Kommentar* (Neukirchener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Janzen, J. G.,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Hans-Joachim Kraus, *Psalmen Teilbd.2*, tr. by H. C. Oswald, *Psalms 60-150*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Gesenius, W., *Gesenius Hebrew Grammar*, Kautzsch, E., Cowley, A. E.,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0)

McCarthy, M., *The TiQQune Sopherim* (Göttingen: Vanderhoeck und Ruprecht, 1982)

Newsom, C. A., *The Book of Job*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ope,M. H., Job, *The Anchor Bible* 15 (New York: Doubleday, 1997)

Ringgren, H., "אֱלֹהִים"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1 (Grand Rapid: W. B. Eerdmans Pub-

www.kci.go.kr

lishing Company, 1972)

Schmidt, W. H., "אֱלֹהִים" Ernst Jenni, Claus Westermann (ed.), *Theologisches Hand wrterbuch zum Alten Testament*, Mark E. Biddle,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1 (Peabody: Hendrickson, 1997)

Seow, C. L., *Job 1-21* (Michigan/Cambridge: Grand Rapids, 2013)

Weil, G. E., (ed.), *Massorah Gedolah*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1)

Westermann. C. /tr. H. C. White,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London: Luther Worth Press, 1967)

_____,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검색어

야훼
엘로힘
욥
소유 목록
수미상응구조

A Study on the Lists of Property and the Change of God's Name in the Prologue and the Epilogue of Job:

Focused on the Texts of 1:1-5 and 42:12-13

Jin Myung Kim, Th.D.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literary function and theological meaning of Job 1:1-5 and 42:12-13. Especially the list of property of Job in Job 1:2-3 (prologue) is literally echoed in 42:12-13 (epilogue). These two texts make an ´inclusio´ which is a rhetorical and literary structure, and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m. The change of the appellation of God (Elohim → YHWH) is the most important. What is the purpose of Job's writer in regard to this change?

Most former interpreters of Job 1:1-5 have not taken much interest in the list of Job's property (1:2-3; 42:12-13). The present study, however, explores the rhetorical structure and function of 1:1-5 (2-3) and its theological meaning as an 'inclusio' of the proclamation of YHWH. The assumption is that the Hebrew tale of Job is connected with the common tradition (traditum) of the suffering-literature of Ancient Near Eastern texts and that it includes the process of Israelization of the tradition (traditio).

By using a rhetorical critical metho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texts in the book of Job (introduction, chaps. 1-2 (1:14-18); conclusion, 42:7-17 (12-13)),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lists

www.kci.go.kr

of Job's property. In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the dual function of Job 1:1-5 was identified not only as a small intro to the introduction (chaps. 1-2) but also as an intro to the whole book (chaps. 1-42). The conclusion was also reached that the writer of the book of Job tried to propose a religious message through this literary structure and rhetorical devices: 'Elohim' as a common god of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traditum) is Israel's 'YHWH,' who is the Lord of life, the first and the last, the Creator of the world, and the real giver of blessings (traditio).

Through this study, it was proved that one of the purposes of writing this book is to deliver such a religious message to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This interpretation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timeless lesson of the book of Job and its identity as one of the religious canonical books in the Old Testament.

Keywords

YHWH
Elohim
Job
the llist of property
inclusio

■ 투고일: 2016년 1월 16일
■ 심사일: 2016년 1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9일

www.kci.go.kr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박철우 (나사렛대)

1. 서론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는 그 책이 담지하고 있는 핵심신학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가 제시되어왔다. 특히 에스케나지(Tamara C. Eskenazi)는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두 개의 핵심목록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이 책에서 수미상응(inclusio)을 이루며 이 두 목록 사이에서, 에스라 1장 1-4절의 서언적 내용이 3단계로 실현되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8-13장이 이 모든 내용의 완성이며 결론부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1] 그러나 밴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나사렛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1) Tamara C. Eskenazi, "The Structure of Ezra–Nehemiah and the Integrity of the Book", *JBL* 107(1988), 641–656; idem, *In an Age of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88).